

#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세부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머니투데이 9월 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## 1. 기사내용

- 머니투데이는 9월 8일 「F4'도 반대했다...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없던 일로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경제부총리, 금융위원장, 한국은행총재,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·금융수장들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” 하였으며, “현행유지에 방점을 찍은 수장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관계기관이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, 10월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 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.
-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금융위원회<br>구조개선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주홍민 (02-2100-29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남창우 (02-2100-2903) |